

민족정서 묶을 '1국가 2체제'

학술 특집 — 연방제 통일방안과 통일운동의 과제

본고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제시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타당성과 통일주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I. 글을 시작하며

소련 정체의 급변과 함께 내의 분열주의자들의 조국의 영구분단과 민족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더욱 드세어지고 있다. 특히 유엔분리가입을 계기로 이를 영구화하며 장기집권을 위한 분단영구화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정권의 반민족적·반민중적, 반통일적 정책을 부술 수 있는 투쟁의 무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 현시기 민족민주운동세력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대중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완결적인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통일운동방안이 그들 스스로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통일이라는 것은 자주적 통일정부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7천만 겨레가 새로이 역사의 주체로 나섬을 뜻하는 것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투쟁은 통일세력의 확고한 단결을 보장하고 통일운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며 7천만 겨레의 통일 열망을 더욱 격화할 것

이다.

II. 과학적 통일방안의 제기

통일운동이란 기존의 분단국가의 형태를 극복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국가의 건설운동이며 우선은 통일정부수립운동이다. 통일방

안이라 부르는 것은, 전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다. 이를 구체화한 통일방안이 무엇일까? 그것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의 남한 강점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미국의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이 독일 중국 등의 분단국가의 분단의 요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대립 또는 계급분

과 원칙을 구현한 통일방안이 연방제인 것이다.

III. 연방제통일의 필요성

연방제통일은 왜 필요한가? 즉 연방제 통일의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연방제 통일의 반대는 제도통일이다. 제도통일이란 남과 북을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과거모습과 비교할때, 또 분단의 현재의 모습이 갖는 특징을

분단피해 동질성, 사상 이질화 극복 가능 기득권 세력 포함한 전국민 통일주체로 세워야

안의 제시는 통일운동에 대한 과학성의 담보였으며 이 과학성의 담보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남한의 민족화합적 통일방안으로 우선 가능해졌던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식은 통일운동을 보다 발전시키면서 운동주체로부터 민족적인 통일방안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식은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외세의 힘이나 주변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7천만 민중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또, 전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다. 이를 구체화한 통일방안이 무엇일까? 그것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의 남한 강점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미국의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이 독일 중국 등의 분단국가의 분단의 요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대립 또는 계급분

분때 제도통일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분단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할때 분단의 현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이 장기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분단의 뿌리가 깊어졌다는 말이고 이는 분단이후세 대에 계승되어 나타나며 이들은 통일된 세계에 살았던 경험이 없으니 분단 이후에 통일된 세계에 살아가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는 정치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져 독일 통일의 경우처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통한 통일을 남과 북에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남과 북의 정치집단이 각각 다른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다. 둘째, 남과 북의 사상적 차이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60년대 이전까지는 남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60년 이후에 북한은 사회주의로의 길을 남한은 남한대로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가 두사회의 이질성은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비슷하게 만들려는 방식으로의 통일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옳고 그르기를 떠나 남북 모두 자기것에 집착하려는 속성이 강해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권차원의 자기 예고이도로 볼 수 없다. 이성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연방제 말고는 통일할 수 있는

방제 통일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갖는 근거일 것이다.

IV. 민중을 통일의 주체로 내세우는 길

통일의 주체는 7천만겨레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이 문제이다. 특정한 계도를 가지고 통일하자고 할때 통일은 할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렵다. 여기서 전쟁의 경험은 중요하다. 남북 민중 모두 통일에의 절박성은 느끼지만 그런 방법은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며 이를 풀어주지 않는 한 7천만 겨레가 통일의 길로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 최근에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독일처럼 북이 몰락해야 통일이 될 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통일의 주체로 설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통일을 기다리면 된다. 정부의 북방정책과 창구단일화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자기가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투쟁에 나서지 않는 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원칙적으로 주체와 합과 현실적으로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은 다르다. 통일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민중에게 "통일은 된다"는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현시기 통일 문제를 보는 노동자의 입장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동요할 수 밖에 없다. 동구처럼 자본주의의 압력 요소들이 유흥가, 사냥가들이 범람하게 된다면 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또 북한의 영향으로 남쪽까지 빨간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그리며 노동자들은 통일된 사회에서의 자신의 삶의 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서 각각의 체제에서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통일운동에 나설 수 있게 하려면 어떤 한 체제에 의한 흡수통합은 통일이 된다 하여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민중들을 통일에 있어서 주체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연방제 통일일 것이다.

김주창

(경기남부민연 정책실)

학술정보

'성찰과전진을위한'강좌 10일부터 정실련 강당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6시 '성찰과 전진을 위한'(정실련)대학생강좌2를 개최한다. 정실련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의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0일:사회변화에 따른 실천방법론 모색의 의미와 전망-서경석(경실련 사무총장) 9월12일:현실 사회주의 변혁의 전개과정과 의미-박세일(서울대교수) 9월17일:한국경제의 현황과 모순구조 및 극복대안-이진순(숭실대교수) 9월19일:사회사상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변화흐름과 전망-황정식(서울대교수) 9월24일:지방의 혁신적 결과와 한국사회의 진로-이영희(인하대교수, 시민연대표의 상임운영위원장) 9월28일:6월항쟁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시민운동-이각범(서울대교수) 참가비 1만원 (문의 741-7961~5) 10월1일:생태학교 개회 화·금, 중앙불교교육원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은 9월6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30분 "지구생태계의 위기와 올바른 삶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제1기 생태학교를 개회한다. 10월31일까지 중앙불교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환경·생태계의 문제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조망해 새로운 인간관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모색한다. 참가비는 1인1천원 (문의:765-6324, 737-0853)

미니시리즈 — '한국증권학회'

기업투자 좌우할 자금책

계속적인 물가불안, 무역 적자등으로 인해 난항중인 한국경제와 캐를 같이 하는 증권계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치·경제변동에 따라 기복이 큰 주식 시장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곳인 한국증권학회는 지난 76년 창립되어 당시 관제, 증권계, 학계, 투자자대표가 모여 토의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기업에 대한 자금·투자의 일환인 증권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던 지난 88-89년에 한 때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가 호황이면 활성화 될 수 있는 증권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투자자의 이해에 앞서 기업의 장기적 자금 조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증권의 기능은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요인으로서는 국민적 분위기, 적은 투자자수를 들 수 있다.

이에 증권학회 회원인 본교 김진우(경영대·경영학)교수는 "아직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증권에 대한 의식이 타국보다 저급한 상태로, 지금도 주식을 황금알 낳는 거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사고를 지닌 셈이요 증권은 단기적 안목의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시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곳임이다"라며 투자자의 성숙된 자세 미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주식시장의 불경기, 즉 국내의 적은 투

자수 수와 작은 자본 보충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증권시장을 개방한다.

개방초기 단계인 내년에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본한도를 설정하는 외에도 특별한도를 정하기도 한 이번 외국자본자율화 조치는 한국증권학회의 최근 관심 사항이기도 한 것이다.

이미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의 외국에선 이미 도입된 이 조치가 한국에서 이제껏 미루어 저 온 이유는 아직 한국 증권시장의 기반이 취약한 탓이다.

일부에선 이번 증권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권에 활약소가 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한국증권학회는 현재 특별회원 42개사대표, 일반회원 2백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증권계에는 박사과정을 밟는 수험생이 상당히 있으며 이들과 교수들을 포함한 증권학도자 모여 산학 협동체를 이룬 이 학회는 자체 사무실을 증권회사 지원으로 가지고 있는것도 한 특징이다.

역사가 짧은 반면 당시의 상황과 맞물리는 증권의 시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 학회는 1년에 3번 정도의 모임에서 연구발표회를 갖고, 1회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구발표회 논문들은 논문집으로 발행된다.

이 학회 회원으로 본교에 서는 김진우교수외에도 이정규, 한동 교수 등 경영학과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은희 記者)

장기적 안목의 성숙된 주식투자 자세 필요



'일벌레' 칭송하는 곡필사

얼마전 모일간지에서는 '세계가 뛰고 있다'는 제목의 기획물을 연재한 일이 있었다. 기획연재물인 '세계가...'의 중심선 전담내용은 외국기업과 정부의 연구성과 모범사례발표 및 기계기술개발에 따른 국가간 기업간 경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사실 이 기획은 상당부분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정보로써의 가치도 있었다.

그런데, 이 '세계는...'의 후속편으로 나온 '우리도 다시 뛰자'는 기획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도...'의 주요 맥락을 보면 첫째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오만이 현재의 경제정책에 이어졌다는 점을 들고있다. 또한 행정관리들의 구시대적 행정조직들로 인해 기업의 발이 묶였으며, 시장개방과 국제수지관리에도 헛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두번째 맥락은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기업에 대한 전략의 목소리였다. 일본, 미국 등 외국기업들은 기술개발에 거의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반면 유독 한국의 기업들은 골짜기 잔디와 톱살롱의 컷팅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이다.

공공장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개미와 골짜기 잔디위에서 빈둥대는 벼랑이는 결코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는 결코 첫번째, 두번째 맥락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세번째 논지를 펴기위한 단순한 소모품일 뿐이었다.

세번째로 펴는 논리를 보면 예전에 한국



은 '일벌레'였는데 지금 한국은 민주화라는 소용돌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불평등이 높아지며 이로인해 한국의 신용을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예정된 수순에 의한 이러한 논조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그 책임 또한 노동운을 게을리 하는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공교롭게도 '세계는...'시리즈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즉 산업사회에서의 경쟁관계와 생산성을 단순한 수치로 환산하여 이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권의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말려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결론으로 유도된다.

과거 언론플레이라고 하던 사실이나 권력을 이용,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며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던가, 폭력시위를 일삼는 대학은 필요없다 라고 하는 직설적·감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연재물의 경우 자연스럽게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면서 지면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우리도...'시리즈는 다시뛰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가 뛰려하는데 민주화가, 노동자가 방해한다는 일관된 논조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이나 정부를 비판하다가도 그것없이 민주화가 나오고 '일벌레'가 나오는 시리즈의 결말부분은 5공 초 신군부의 지도성을 칭송하던 사실보다 더 무시무시한(?) 곡필사로 다가옴을 제시봉자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津教授著

구문도해

英語構文論

양장미본 ₩ 8,600

TOEFL·VOCABULARY & TOEIC 이 책을 보기 전에 SYNTAX 제 5형식 도해부터 연구하라 하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장엄한 추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상강의서
기초 영어구문론
₩ 5,800

이강의도
●아무리 hearing이 급해도 영어연구의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상강의서 기초구문론으로부터!!!

百萬社 社 266-8304
서울·충무로 267

軍·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처

- 고졸이상 17~26세
- 행정병특기부여
- 매월 단독 입영
-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사화원주의

- 사무자동화(OA)병
- 차트(일반행정병)
- 타지행정병

관인성학원

☎ 730-6946~7
종로1가 무과수제과 2층

관인유니타학원

☎ 735-2323, 9716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옆

미국 GIA 보석디자인

"9월25일 보석 디자인 코스 신설"

- 한국 보석 연구원(GIA KOREA)에서는 카운터스캐치(보석디자인)코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카운터 스캐치이란고객이 원하시는 디자인이나,디자인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고객 앞에서 분명하고 신속하게 스케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석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배울수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신후에 시험에 통과하시면 미국 GIA에서 발급하는 증명(Certificate)가 수여됩니다.
 - ▶ 주간 : 1991년 9월 25일 개강(10주간)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월~금)
 - ▶ 야간 : 1991년 10월 7일 개강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격일제 수업)

GG코스 (보석 감정사 전문 교육)

- ▶ 단기 교육 및 통신 교육생 모집
- ▶ 수시 접수
- 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파출소 건너편
- TEL : 540-7637 · FAX : 549-9174

GIA KOREA 미국 GIA 부설 한국보석연구원

국내외 최신의 사회과학 학술정보를 보다 빠르게 이용하십시오.

자료열람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
THE KOREA SOCIAL SCIENCE LIBRARY

* 소장자료
최신간 단행본 : 48,000여권
국내외 학술지 : 1,200여종
마이크로폼 자료 : 53,000여점
국내외 학회논문 및 각종 연구논문
국제기구 발행의 통계 및 보고서

* 소장자료의 주제분야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사업학, 여성학, 지역연구 및 그 인접분야

* 열람시설
참고열람실, 장기열람실.

일반열람실(100석)
(참고열람실, 장기열람실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관일
대학강사이상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서비스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운영,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편리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서비스 내용

1. 신착자료속보 제공(월간)
-단행본, 학회논문, 장기열람실 목차 수록
2. 소장 장기열람실 목록 제공
3. 신착도서목록 제공(월간)
4. 서신 및 전화상담에 의한 자료봉사 및 우송
5. 희망도서 구입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서신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열람시간
평 일 9:00-18:00
토요일 9:00-15:00

한국사회과학도서관
THE KOREA SOCIAL SCIENCE LIBRARY
종로구 사직동 304-28 TEL : 738-5015, 739-9258 FAX : 735-2653